

# 東醫精神醫學의 發展史略

周 長 髮 著

韓醫學 博士 崔 三 燮 譯

精神醫學은 東洋醫學의 貴重한 醫學遺産의 一部分이다. 本論文은 有關한 史料를 系統的으로 整理하여 精神醫學의 發展史를 經典時期, 晉唐時期, 그리고 金元代以後 等 三 단계로 나누어 高찰하였다.

## I. 內經. 難經. 傷寒論의 精神醫學

經典의 精神病에 對한 認識은 東醫精神醫學의 基礎를 定立하였다.

### 一. 精神病 病名의 確立

東洋醫學과 古代希臘醫學은 精神病을 認識한 最初이며 春秋戰國時代에 著作된것으로 推定되는 醫學의 巨作인 《內經》은 史上 最初로 精神病을 “癲” “狂” 이라 命名하였으며 모든 精神病을 크게 癲狂의 範圍內에 概括하였다. 《內經》에서 “棄衣而走, 登高而歌” “妄言罵詈” “善笑好歌樂, 妄行不休” 等은 하나같이 精神運動性興奮狀態를 主로 表現한 것이며 躁狂症같은 精神病을 “狂” 이라 稱하였다. 그러나 “妄見而妄言” “病至則變人與火, 聞水聲則惕然而驚心欲動, 獨閉戶塞牖而處” 等은 모두 妄想, 幻覺, 退縮을 主로 表現한 것이며 類似精神分裂症類를 癲症이라 稱하였다.

內經에서 精神症狀를 根據로하여 精神病을 크게 癲과 狂의 二大類型으로 나누어 認識한것은 同時代 古希臘에서 認識한 精神病이란 一種의 “神經性疾病”(Sacrad-disease) 이라는 觀點보다 크게 發展돼 있었다는 점은 의심할 나위도 없다.

內經에서 創立한 精神病의 病名 “癲” 과 “狂” 은 東漢前의 難經에서는 보다더 發展된 區別을 하고 있는바 “重陽者狂, 重陰者癲” 또는 “狂疾之始發, 小臥而不飢, 自高賢也, 自辯智也, 自倨貴也, 妄笑好歌樂, 妄行不休” 라 하였고 또한 “癲疾始發意不樂, 僵臥直視” 라 한것 等으로 이처럼 難經에서는 陰陽學說과 臨床의 兩面에 依據하여 癲狂을 鑑別하므로써 進一步의 發展된 闡述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難經의 觀點은 精神病의 特殊한 體徵과 特別한 檢査成績이 없는한 現代에도 如前히 精神症狀의 診斷과 病名에 主要根據가 된다는 點에서 매우 貴重한 것이라 할수 있으며 따라서 內經에서 症狀를 가지고 病名을 붙이고 診斷하는데 主要 根據를 삼은것은 確實히 科學的이라고 하겠다

東醫精神病學中 主要한 病名은 비록 歷代醫家들을 通하여 不斷히 充實, 完善과 修正을 거쳤으나 단 總括的으로 말해서 그 基本은 內經에서 確立한 病名인 癲과 狂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漢代의 뛰어난 醫學家 張仲景(AD 150~219)의 金匱要略中에 맨처음 “臟躁” 라고 病名이 나오는데 이것은 癔病과 類似한 精神疾病으로 “婦人臟躁, 悲傷欲哭, 象如神靈所作, 類欠伸” 이라 表現하고 있다. 臟躁라는 이 病名은 日本에서는 現在에도 如前히 Hysteria(癔病)을 臟躁라고 解釋하고 있다.

### 二. 精神病의 全面的概括

內經에서 精神病의 하나인 狂症은 “熱盛在身” “陽明病盛”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것으로 보았고 또한 “諸躁狂越，皆屬于火”라 하여 精神病의 主要原因이 火임을 分明히 하고 있다. 狂症의 發病機理에 關하여서는 內經의 陰陽，氣血，臟象，經絡 등에서 나누어 關述하고 있는데 例를 들면 “血并于陰，氣并于陽，故爲癡狂” “肺喜樂無極則傷魄，魄傷則狂” 등이 그것이다. 또한 內經에서 狂証의 症狀에 對한 描寫는 매우 生動感있게 表現하고 있는바 “妄言，罵詈，不避親疎” “棄衣而走，登高而歌，或至不食數日，踰垣上屋，所上之處，皆非其素所能也” “狂者多食，善見鬼神，善笑” 等等이다. 內經의 十三方中의 하나인 “生鐵落飲”은 狂証을 治療하는 專門方劑이다. 同時에 狂証을 治療하는 針灸方法을 記載하고 있는데 例를 들면 “狂…治之手太陽，陽明，足太陰 頭兩側이라든지 “狂治之取手陽明太陽，太陰，舌下小陰，視之盛者 皆取之不盛釋也”라 한 것이다.

또한 內經에서는 狂証을 治療하는 禁食法을 提示하였고 또 “脈搏大滑，久自己 脈小 堅急死不治”라 하여 豫後에 關한 論述을 하고 있다.

癡証에 關한 病因，病理，症狀，治療，豫後 等도 亦是 概括的인 論述을 하고 있다.

張機(仲景)의 傷寒論에서도 急性熱病，或 傳染病으로 말미암아 發生되는 精神障礙를 比較的 詳細히 論述하고 있다. 例를 들면 傷寒論 第 217條에 “傷寒若吐若下後不解，不大便五六日 上至十餘日 日浦所發潮熱 不惡寒獨語如見鬼狀，若劇者 發則不識人，循衣摸床 惕而不安，微喘直視，脈弦者生，澁者死，微者，但發熱性語者大承氣湯主之，若一服利則上後服”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一種의 感染性精神病의 病因，病理症狀，治療，豫後 等 概括的인 論述을 한 것이다. 이 외에도 傷寒論에 精神病에 關한 論述은 주로 “發狂” “驚狂” “如狂” “妄見” “如見鬼狀” “直視” “譫語” “獨語” “鄭聲” “不得眠” “多眠” “煩躁” “恍惚” “捨衣摸床” 等으로 매우 多樣하게 表現하고 있다.

金匱要略에서도 癡病(히스테리)을 詳細하게 論하고 있는 외에 發熱性妄에 隨伴된 恐怖性幻覺의 精神病을 實感나게 描寫하고 있다. 즉 “婦人傷寒發熱，經水適來，晝日明了，暮則譫語，如見鬼狀者，此爲熱入血室，治之無犯胃氣及上二焦自愈”라 하여 感染性情神病的 病名，病因，病理，症狀，治則，豫後 等 모두를 概括하고 있고 아울러 産後精神病도 全面的인 論述을 하고 있다.

經典時期後 약 1500여년 中에 東醫精神病學은 많은 發展을 거듭했으나 根本적인 面에서 經典의 基礎的인 定立軌道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 三. 精神病에 關한 最初의 專門論述

內經中의 “癡狂篇”은 醫學史上 最初의 精神病專門論篇이다. 癡狂篇은 “癡疾始生先不樂” “狂始生，先自悲也，善妄苦怒善恐者得之擾飢”라 하여 精神病發病原因을 關述하였고，“癡疾始作先反僵” “狂始發小臥不飢，自高賢也，自辯智也 自尊貴也，善罵詈，日夜不休”라 하여 精神病의 証候를 論하였으며 아울러 “狂而新發 未慮如此者，先取曲泉左右動脈，及盛者見血有頃已，不已以法取之 灸臑二十壯” 等 針刺와 艾灸의 治療方法을 論하고 同時에 “癡疾者 疾發如狂者死不治”라 하여 豫後를 論하고 있다.

이와같이 癡狂篇은 精神病를 論述한 專門篇으로 理論이 相當히 完備되 있어 世界 精神病學의 重要한 歷史文獻이며 醫學史上 가장 最初의 精神病專門論述이라는 Aulus Corenlius Celsus(BC 25~50)가 著述한 《De remedia》보다 500여년이 빠른 것이다.

이외에 內經의 移精變氣論 또한 精神病 治療를 移精과 變氣로 治療할 수 있음을

論述하고 있다.

## II. 晉唐代的 精神病學

晉唐代는 精神病의 病因, 證候學을 비롯하여 精神病의 豫防治療의 理, 法, 方, 藥 等 全般的인 發展을 이룩한 時代이다.

### 一. 精神病病因 證候學의 發展

精神病의 病因과 證候에 對한 認識은 上述한 바와 같이 內經에 이미 記載되었고 隋代에 이르러 더욱 새롭게 發展되었다. AD 610年 巢元方이 編集한 《諸病源候論》에 精神病의 原因및 證候를 40餘種으로 나누어 收錄하고 있다. 이러한 論述은 當時에 이미 精神分裂症, 躁狂症, 抑鬱症 및 感染性精神病, 外傷性精神病, 産後精神病 等 에 대하여 비교적 깊은 認識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諸病源候論, 風狂病候에 그 病因에 對하여 “由風邪入并于陽所爲也”라 하였고 發病의 機轉을 “風邪入血, 使人陰陽二氣 虛實不調 若一實一虛則令血氣相并, 氣并于陽則爲狂發”이라 하였으며 그 發病의 表現을 “狂發 或欲走或自稱高賢, 稱神聖是也”라고 하였다. 또한 鬼邪候 中에서는 病因과 證候의 다른 一面에 對하여 “凡邪氣鬼物所爲病也, 其狀不同, 或言語錯謬, 或哭驚走, 或癡狂昏亂, 或喜怒悲笑, 或大怖懼如人來逐, 或歌謠咏嘯, 或不肯語”라 論하고 있다.

이렇듯이 精神病의 病因과 發病機理에 對한 論述이 比較的 詳細하고 科學的이며 精神病의 證候와 症狀이 比較的 細密하고 正確하다. 이와 같은 諸病源候論의 病因證候學의 成就是 精神病學의 理論과 實際에 있어서 모두 相當한 發展과 提高가 있었으며 東醫精神病學史에 하나의 貴重한 文獻임에 틀림없다.

### 二. 精神病學의 全面的인 發展

孫思邈(AD 581~682)은 唐代에 才一 뛰어난 醫家로서 그의 《千金方》은 唐代以前의 許多한 醫學著作中 精神病學과 有關한 論述을 總結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한 自身の 80餘年의 臨床體驗을 記錄하여 東醫精神病學의 發展史에 크게 貢獻하였다. 그의 著書에는 이미 散失되어 現傳하지 않는 古代 醫學著書中 精神病에 有關한 內容까지를 收錄整理하고 있으며 自身이 實際臨床에서 얻은 精神症狀를 細密하게 記錄하고 있다. 例로서 《千金翼方》中에서 “其有種種形相, 示表癡邪之端而其病, 或有默然而不聲, 或復多言而漫語, 或歌或哭, 或笑或吟, 或眠坐溝渠, 噉食糞穢, 或裸露形見體, 或晝夜遊走, 或嘔罵無度, 或示飛虫精, 手亂目急, 如斯類癡狂之人”이라 하였느바 이 一段의 文獻中에 感知障礙, 思惟障礙, 情緒障礙, 言語障礙, 動作障礙, 意志障礙 等 各種精神 障礙를 論하고 있다. 精神病分類學面에 있어서 孫思邈이 各種精神病을 맨처음 臟腑虛實寒熱에 總括하였고 別途로 婦女, 小兒精神病을 專門으로 그 該當科에 附論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分論은 比較的 詳細하여 매우 實用的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와같은 孫思邈의 最初의 完備된 精神病治療에 對한 理, 法, 方, 藥의 理論體系는 唐以前의 精神病學의 理論과 實用的인 精華를 呼吸하였으며 自身の 學術觀點과 治療方藥을 注入하여 그의 高邁한 醫學思想을 엿보게 한다. 一例를 들면 그는 千金翼方의 補心湯門에 “主奄奄

忽忽 朝差暮劇，驚悸心中憧憧，胃滿不下食飲，陰陽氣衰，脾胃不磨，不欲聞人聲，定志下氣”라 하여 主治証을 提示하고 方藥으로 人參, 茯苓, 龍齒, 當歸, 遠志, 甘草, 桂心, 半夏, 生薑, 大棗, 黃芪, 枳實, 桔梗, 茯神을 記載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心因性精神障礙疾病의 豫防과 治療에 對한 理, 法, 方, 藥을 概述한 것이다. 이처럼 孫思邈은 적지않은 抗精神病藥物을 總括하였거나 創造하여 後世에 傳하여 現在 使用되고 있는 精神病治療方藥中 그의 方劑가 적지 않다. 그는 針灸治療 또한 重視하였는데 千金方中에 論述한 針灸治療의 條文이 117條나 되며 그 一例로 “衝陽, 豐隆主狂妄行登高而歌, 棄衣而走” “下廉 丘墟主狂言非常” 등이며 現在에도 많은 臨床醫들이 治療에 應用하고 있다. 또한 “別離散, 治男女風邪, 男夢見女, 女夢見男, 悲愁憂志, 怒喜無常 或半月 數月一發動者方”이라 하였는바 이는 그의 類似周期性精神病에 對한 描寫이다.

孫思邈과 同時代사람인 王燾는 AD 751년에 外台秘要 40卷을 編撰하였는데 全書를 1104門 6000餘方으로 나누어 唐代以前의 醫學을 集大成하였다. 그는 氣血失調가 精神病의 主要病理라 하는 등 많은 精神疾病을 論述하고 許多한 治療方藥을 收錄하였다. 千金方과 外台秘要是 實로 東洋醫學의 精神病學을 새로운 경지에 올려 놓았다.

### Ⅲ. 金元代以後 精神病學의 成就

累代에 걸친 豊富한 臨床體驗의 基礎위에 宋金元代의 學術思想의 活躍으로 精神病의 病因에 對한 討論과 鬭爭을 通하여 東醫精神病의 三大學說 즉 火熱說, 痰說, 氣血說의 創立을 보게 되어 東醫精神病學의 커다란 成就를 이룩하게 되었다.

#### 1. 劉 元素의 火熱說創立

金元代 劉 元素(1110-1200)는 素問의 “諸躁狂越, 皆屬于火”의 觀點을 發揮하여 精神病은 모두 火(熱)로 因하여 惹起된다고 主張하였다. 그는 “諸病…驚惑, 悲笑, 譫妄, 衄衄, 血汗, 皆屬于熱”이라 하고 또한 “諸熱, 瘡癩, 暴暗冒昧, 躁憂狂越, 罵詈, 驚駭…皆屬于火” “狂者, 乖狂亂而無正定, 越者乘月禮法而失常也, 夫外清而內濁, 動亂參差, 火之體靜順清郎, 准則信平, 水之體, 內是腎水立志而水火相反, 故心火則旺腎水衰, 乃失志狂越”이라하였고 그러므로 精神病治療는 降心火하고 益腎水를 爲主로 하여야 한다고 提倡하였다. 그는 狂怒를 治療하는 處方으로 當歸龍會丸을 創製하였는데 이는 주로 清熱瀉火藥인 龍胆草, 梔子, 黃連, 黃栢, 大黃, 黃芩, 蘆薈, 清黛 등으로 構成하였고, 그 效能이 大寒大苦하여 火邪를 直瀉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이 當歸龍會丸이 劉 元素의 精神病火熱 學說의 代表方의 하나이다.

#### 2. 張 子和의 痰說

金元代 張 子和(1156-1228)는 精神病을 “痰迷心竅”가 그 原因임을 맨 처음 提倡하였다. 그는 “肝屢謾 胆屢不決, 屈無所伸, 怒無所泄, 心血日, 脾液不行, 痰迷心竅”하게 되어 精神疾病이 發生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吐下法을 써서 孟攻頑痰시켜 治療할 것을 主張하였으며 吐方으로 瓜蒂散을, 下方은 承氣湯을 常用하고 있다. 그의 治驗例를 보면 “一叟, 年六十, 值徭役煩擾而暴發狂, 口鼻覺如虫行, 兩手爬搔,

數年不已 載人…… 乃命置輿室中，涌而汗出，如此三次……又以調胃承氣湯半斤，用水五升，煎半沸，分作三服，大下二十行，血水與瘀血相雜而下數升，取之乃康，以通聖散調其後矣”라 하였는바 本醫案은 張 子和가 汗吐下三法을 써서 治療한 것으로 먼저 汗法을 쓰고 나중에 下法을 써서 精神病을 治療한 一例이다. 이처럼 三法을 써서 精神病을 治療한 醫案들은 그의 著書 儒門事親中에 매우 많다. 張 子和가 創案한 痰說은 東醫精神病學 發展史上 그 流傳이 매우 廣泛하여 가장 深遠한 影響을 미친 學說이다.

後世醫家들이 張 子和의 痰說을 繼承發揚시켰는데 그 例로 金元代 朱 丹溪(1281-1358)는 “癲風陰，狂風陽，癲多喜而狂多怒，脉虛者可治，實者死，大率多因于痰結心胸間，治當鎮心神，開痰結”이라 하였으며 明代 載 思恭(1324-1405)은 “癲狂由七精所鬱，逐生痰涎，迷塞心竅.”라 하여 精神病의 病因이 痰임을 確認하였고 마땅히 四七湯을 服用해야 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如健忘，如驚悸，如怔忡，五癲，亦宜用比”라고 까지 하였다. 또한 清代 葉天士(1667-1746)도 “狂由大驚大恐，病在肝膽胃經，三陽并于上升故火熾則痰涌，心竅爲之閉塞，癲由積擾積鬱，病在心脾包絡，三陰蔽而不宣，故氣鬱則痰迷神智爲之混淆”라 하였다. 그리고 清代 沈 金鰲(1717-1776) 또한 “治癲先以吐劑涌去痰涎，次進安神之劑，治狂先脫其食，次下其痰瀉其火”라 하였다.

이렇듯이 歷代醫家들의 不斷한 研究와 努力으로 精神病學의 痰說은 끊임 없이 補充과 發展을 가져왔다.

### 三. 王 清任의 氣血說

“氣血”은 東洋醫學의 生理와 病理 모든 面에서 매우 重視되어 왔으며 內經에서도 일찌기 言及된 바가 있다. 그러나 唐代 外台秘要에서 氣血失調가 精神病의 主要病理임을 舉論하였고 특히 清代 王 清任(1768-1831)이 前人들의 論點을 基礎로 하고 그 위에 自身の 體驗을 加하여 “治病要訣 在明白氣血”이라 하였다. 그의 《醫林改錯》中 에서 “癲狂一証，哭笑不休，罵詈歌唱，不避親疎，許多惡態，乃氣血凝滯腦氣，與臟腑不接，如同作夢一樣”이라 하여 氣血失調가 氣血凝滯를 造成하고 그것이 바로 精神病을 發生시킨다고 主張하였다. 따라서 治療도 活血化瘀法을 써야하며 “癲狂夢醒湯”과 “血府逐瘀湯”等 名方을 創製하여 現金에 이르기 까지 常用되고 있다.

清末以後 西洋精神學이 傳入됨에 따라 東醫精神病學에도 若干의 影響이 있었다. 周 岐隱의 《精神病廣要》(1909)는 近代 東洋醫學의 精神病學 專門書로서 그 內容은 두 部分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하나는 “述古”로서 古代東醫 精神病學을 整理하였으며 그 두번째는 “譯說”로서 日本, 英國 等 外國精神病學을 紹介하고 있다. 또한 張 錫純(1860-1933)의 《醫學衷中參西錄》에 精神病을 論함에 있어 東醫의 傳統學說인 痰火之說을 基礎로 하고 거기다가 西洋의 精神病學의 認識을 結合하여 “衷中參西”라 命名하였는 바 이는 精神病學東西結合의 初步試驗段階라고 하겠다.